

“대형 중고차업체 입점땀 순천 매매상 다 죽는다”

90여개 과당경쟁 속 케이크 입점설에 집단 반발 시민 등 1500여명 입점 반대 서명 등 총력 투쟁

국내 최대 중고차업체인 케이크가 순천점 출점을 예고하면서 지역 중고차 매매상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크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지난 2018년 SK엔카 직영부문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꿔 출범된 회사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43개 매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여원, 영업이익 377억원을 거둔 중고차 업계 대형 업체다.

케이크는 지난 6월 순천시 연향동 12번지 4302㎡(1300여평)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10월 출점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크 입점설에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150개 중고차 업체는 즉각 반발하며 영세사업자 위주로 버티는 중고차 시장에서 케이크가 중고차 매집을 싹쓸이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케이크 직영점이 진출해 있는 광주의 경우만 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 중고차 매매협회 관계자는 “순천에는 86개 매매업체가 등록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매입

이 이루어져야 판매가 되는데 매집 우선 순위를 뺏길 수밖에 없어 매출의 50%까지도 케이크가 장악할 수 있다”고 고소연했다.

지역에선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중인 한앤컴퍼니가 회사 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향이 있어 대대적인 전국 체인망을 갖춘 뒤 재벌에 ‘통 매각’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자동차매매협회는 종사자와 시민 등 1500여명의 케이크 입점 반대 서명을 받아 순천시와 시의회, 케이크, 국회 을지로위원회에 명부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총력투쟁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도 지난 7월16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케이크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현재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은 인근 시와 비교해 포화 정도가 심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크의 순천시 진출은 우리 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순천시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기 순천시자동차매매협회 회장은 “케이크의 입점으로 지역을 떠나 동부권의 영세 매매상들의 존립이 위태롭다”며 “세차, 선풍, 도색, 광택, 크리닝 등 10여 가지의 상품화 공정 연관 업체들까지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케이크 본사 관계자는 “순천점 진출 여부나 진행상황에 대해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원박람회 TF팀’가동 순천시 7대 분야·36개 부서

순천시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원박람회 합동 TF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최근 임재영 부시장장을 단장으로 7대 분야·총 36개 부서가 참여하는 ‘정원박람회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7대 분야는 ▲행사장 조성 ▲시민참여 ▲행정 안전 ▲문화관광 ▲도시환경 ▲도로 교통 ▲속박 보전으로 구성됐으며, 합동 TF팀을 통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시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30일 ‘정원박람회 합동 TF팀’의 첫 정기 보고회를 갖고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풍요로운 경제’라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3대 목표에 맞춰 7대 분야·82개 사업들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원박람회 합동 TF팀은 분야마다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추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합동 TF를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순천이 대한민국의 넘어 세계적인 생태관광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섬 전역 ‘천원 여객선’ 운행

9개 항로 196개 구간

여수지역 섬 주민들은 1일부터 1000원만 내면 여수 관내에서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여수시는 9개 항로 196개 전 구간에서 도서민 1000원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섬 주민들은 운항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운임이 8340원 미만인 생활항로 구간에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했으나, 호응이 좋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현재 도서민은 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은 1000원, 8340~3만원은 5000원, 3만~5만 6000원, 5만원 초과는 7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1일부터는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여수~거문도를 이용하는 도서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게 됐다.

여객선 운임은 전남도가 30%, 여수시가 70%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전 구간 1000원 요금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도서관 10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도서민의 이동 및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은 도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환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거문항로를 운항중인 파라다이스호.

세계속에 Green 보성차, 미래 천년을 열다

제9회 세계차엑스포 내일 개막 수출상담회·콘서트·홈트 등 차문화공원 일원서 온택트로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가 3일부터 이틀 동안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온택트로 열린다.

‘세계속에 그린(Green) 보성차, 미래 천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기간 개막식, 세계차품평대회, 쇼핑몰·비디오커머스, 온라인 수출상담회, 콘서트, 보성차랜선골든벨, 차발 힐링요가·홈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해 축하공연 등과 함께 열린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미국·홍콩 등 10개국 해외 바이어사와 보성차생산자조합 등 차 관련 업체 10곳을 연계해 차 농가의 판로확보를 돕는다.

세계차품평대회에서는 수제녹차·홍차·황차·블렌딩 차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쟁한다.

보성차 30% 특별 할인 판매전에는 관내 17개 업체가 참여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12개 업체가 참여한 홈쇼핑 방송이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방영된다.

보성차 랜선 골든벨은 줌 앱을 활용해 2차례 진행되며, 회차별 우승자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상품으로 지급한다.

참가하려면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성세계차엑스포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탬프 챌린지는 행사 기간 온라인 출석체크자 350여명을 선정해 아이패드·자전거·녹차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해 국내 최초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에 6만4000명이 방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 특산물 판촉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 알리기 사업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m@kwangju.co.kr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예방 곡성군, 특화사업 실시

곡성군이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등록된 26개의 어린이급식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생물품도 지원하는 등 ‘식중독 제로(Zero)를 부탁해’를 슬로건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매월 식중독 예방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수시로 식중독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보내 식중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슬기로운 식중독 예방생활’ 키트를 제공해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키트는 보존식 용기, 식재료 원산지 표시 안내서, 식중독 예방 포스터, 라텍스장갑, 주정살균소독제, 타이머로 구성됐다.

주기적인 조리실 순회방문지도도를 통해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철저한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등 곡성군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